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인 이민/멕시코 한인사회와 현지적응*

서성철(재외동포재단)**

- I. 서론
- II. 멕시코이민 개괄
- III. 민족정체성과 한인회
- IV. 향후 전망과 과제
- V. 결론

I. 서론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신자유주의적 경제단일화 체제가 형성되면서 정보, 아이디어, 자본, 상품, 문화, 서비스 및 인적자원이 빠르고도 무한정으로 유통되면서 동시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지구촌 공간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관계망 형성의 변화는 한 국가의 내적, 외적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최근의 급속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사회적 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라틴아메리카는 이주로 이루어진 땅이다. 역사를 통해서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들은 이 지역으로 이주해와 충돌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Sung-Chul Suh(Overseas Koreans Foundation, scsuh@unitel.co.kr) "América Latina e inmigración coreana : la comunidad coreana en México y la adaptación de los coreanos en México".

과 융합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라틴아메리카 사회·문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정치·경제적 위기는 수많은 라틴아메리카인들을 역내, 역외의 국경선으로 몰아넣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간의 빈부 차이가 심화되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 입각한 경제블록(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이 형성되면서 급격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와 탈영토성의 문제는 반드시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방화 정책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되는 중국인, 그리고 최근의 IMF 사태 이후, 한국인들의 라틴아메리카 이주가 급증한 현상과 라틴아메리카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하는 사태는 그 중의 한 대표적 예이다. 한편, 기존에 이주한 한국인 이민들의 이동현상도 두드러지는데, 1905년에 멕시코 유카탄에 이주한 한인이민들의 일부가 1921년 쿠바로 재이주한 것을 시발로, 최근의 브라질을 중심으로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의 농업이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중남미의 다른 나라, 또는 미국으로의 재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아르헨티나 경제파산의 영향으로 많은 아르헨티나 거주 동포들이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동안 멕시코 한인사회는 수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동안 너무도 단기간에 한국인들이 멕시코로의 대거 유입되고 한인사회가 급작스럽게 팽창하면서 많은 부작용과 물의가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멕시코 한인사회의 모습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현지 멕시코 사회나 멕시코인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있으며,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05년 멕시코 이민을 시작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중남미로 이민가 그곳에 정주했다. 자국을 떠난 이런 이민이 해당 거주국에서 부딪히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로의 진입과 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같은 아시아인으로 중국이

나 일본의 경우는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보고 있고,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지금 해당지역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방화 정책에 휩쓸려 자기가 떠나온 모국이나 이민간 지역 어디에서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고통과 해당국 정부 사회의 편견과 질시, 그리고 이민자들 자체의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하나의 부담으로서 여전히 안고 있다.

멕시코처럼 다민족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 집단인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가장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인회의 활동을 통해서이다. 초기의 한인회가 민족의 독립이나 교육에 치중했다면 현재의 한인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주 요소는 경제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의 망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경제적 이득을 기초로 한 한인회의 역할과 활동은 향후 멕시코 한인사회의 바로미터로 남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인들의 정체성은 한인회를 통해서 표출되었고 한인회는 한인들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규정지워졌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변화된 멕시코 한인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인들의 바람직한 이주 및 정착, 나아가서는 한국인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멕시코이민 개괄

II.1. 멕시코 이민 역사

중남미 지역에 한국인들이 최초로 이주한 나라는 멕시코이다. 1903년 하와이 이민에 이어 1905년 1,033명의 한인들이 계약노동자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이주했다. 그러나 이 이민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중남미에 다시 한국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한국이 정부수립후 중남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1960년대이다¹⁾.

1960년대는 한국 이민사에서 획기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1959년 브라질과의 수교를 기점으로 1960년대 초 한국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고, 당시 인구와 식량문제 해결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 한국인들이 농업이민으로 진출하게 되었다.²⁾ 브라질을 선두로,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인들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 이 나라들에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 시기의 이민은 농업이민이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도시로 진출하여, 지금의 남미 한인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는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달리 정부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계획이민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연고나 직장 등의 이유로 들어온 경우이다. 본 논문의 필자가 멕시코에 체류하고 있었던 1980년대 초반, 멕시코 거주 한국인 사회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수로 짐작해 볼 때, 60년대나 70년대 멕시코의 한국인 이민들, 또는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수는 더 적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³⁾

당시의 인구구성 분포를 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상사나 대사관 직원,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소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멕시코에 한국인 이민들이 적었던 것은 우선 남미의 농업이민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의 남미이민에 대한 관심의 사라짐, 멕시코 정부의 까다로운 이민규제, 멕시코는 뿌리를 내리고 정주하기보다는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

1) 본논문에서 다룬 한인이민 대상은 1905년 소위 에네켄 한인이민 후손이 아니라 1964년 한국과 멕시코가 수교를 하면서 그 이후에 멕시코로 들어온 한국인 이민들에 한정한다.

2) 1962년, 1차로 92명의 한국인들이 브라질을 향해 떠났고, 1965년에는 78명의 한국인들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95명의 한국인들이 파라과이에 최초로 이주했다.

3) 멕시코 후발이민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서동수씨(2004년 8월13일 인터뷰)는 1968년 멕시코의 한 회사의 공장기술자로 한국에서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대사관 직원이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현재 그는(현재 68세), 멕시코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다.

라는 한국인들의 인식에 기인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그 당시 한국과 멕시코와의 사이에 경제적 교류가 적어서 한국인들에게 멕시코는 좋은 이민대상국으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멕시코에 이민 오고 또 진출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이다. 이 시기 한국인들의 수는 1992년 792명에서 1995년 944명(재외동포현황, 2003)으로 또 1997년에는 2,168명⁴⁾으로 일정한 수적요건의 한인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수적으로는 갑자기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멕시코로 많이 유입하게 된 이유에는 한국의 IMF 사태로 인한 이민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자본을 가진 외국인 이민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장려정책으로 인해 멕시코로 들어오는 것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졌고 기업이나 상업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멕시코에 한국인들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1990년대 말 남미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여파로 그 지역의 한국인들이 경제 조건이 보다 양호한 멕시코로 몰려들어왔다는 데 있다. 특히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점은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으로 그 지역의 많은 한국인 동포들이 멕시코로 이주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에서 1990년대 말까지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거주 한국인의 숫자는 대략 30,0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25,000명으로 줄더니 2003년도에는 15,000명으로 줄어 90년대 초에 비해 거의 1/2 정도로 급감했다.⁵⁾ 이 통계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은 멕시코이다. 1992년을 기준해서 보면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 이민의 총 수는 천명 미만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한국인들은 1999년 2,000명 수준에서 2003년 거의 8배 이상인 17,200명으로 증가

4) 외교통상부가 펴낸 『재외동포현황』(2001년 7월 발간) 참고. 1999년의 통계는 2,379명이다.

5) 아르헨티나를 떠난 한국인들은 인근의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미국, 그리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으나 이 숫자는 미미하며, 대부분은 멕시코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했다(표 1, 중남미 재외동포현황 참조).

<표 1> 중남미 재외동포 현황

지역	1997	1999	2001	2003	백분율(%)
브라질	44,201	46,916	48,097	50,250	47.87
주브라질(대)	708	553	519	650	0.62
주상파울로(총)	43,493	46,363	47,578	49,600	47.00
아르헨티나	32,069	31,248	25,070	15,500	14.67
멕시코	2,168	2,379	19,500	17,200	16.28
파라과이	10,278	10,412	6,190	7,097	6.72
과테말라	2,051	4,128	5,456	7,943	7.52
칠레	1,470	1,487	1,509	1,870	1.77
페루	1,774	810	919	953	0.92
에쿠아도르	959	762	720	728	0.69
볼리비아	718	977	709	758	0.72
도미니카	582	584	588	477	0.45
온두라스	687	759	461	415	0.39
콜롬비아	427	646	428	433	0.41
코스타리카	291	295	385	476	0.45
파나마	328	308	315	312	0.30
엘살바도르	250	360	307	310	0.29
베네수엘라	298	277	278	280	0.27
수리남	-	201	189	122	0.12
니카라과	58	68	157	303	0.29
우루과이	70	94	106	124	0.12
자메이카	102	31	1,155	65	0.06
가이아나	33	22	7	1	-
아이티공화국	5	3	7	20	0.02
트리니다드토바고	24	17	2	1	-
세인트루시아	9	0	0	5	-
총 계	98,852	102,806	111,462	105,643	100

※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남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2003년 현재 24개국 105,643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97년부터 2003년간, 6년 사이에 중남미의 한국인은 98,852명에서 105,643명으로 소수인 약 6,000명 늘었다. 국가별로 가장 많은 이민자 수가 있는 나라별로 살펴보면 브라질(50,250명), 멕시코(17,200명), 아르헨티나(15,500명), 파라과이(7,097명), 과테말라(7,943명), 등이다. 나머지 나라들의 한국인 이민자수는 2천명 미만이다.

출처: 『재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3년7월)

II.2. 멕시코 한인사회 현황

멕시코의 한국인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다.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2003년도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총 17,200명(남: 9,200명, 여: 8,000명)이다. 그러나 멕시코라는 지역은 한국에서 오거나 또는 중남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의 들어오고 나갈 등 이동이 워낙 잦고 변화가 많은 곳이라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이민수를 정확하게 잡기란 어렵다. 멕시코 대사관이나 한인회, 또는 동포언론, 또는 멕시코 동포들 사이에서도 현재의 이민수는 적게는 8,000명에서 많게는 50,000명 등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그러나 1960년대 한국과 멕시코가 수교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 이민들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멕시코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민이라고 부르기에는 수적으로 너무 적었고, 또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고려해 볼 때, 한인사회를 형성하기에는 아직은 이를 수밖에 없었다. 1964년, 멕시코와 한국이 수교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 극소수의 유학생, 멕시코 현지직원으로 채용되어 멕시코에 온 사람들, 그리고 상사직원들이 들어와 초기 한인사회를 형성했다. 엄밀하게 말해서 멕시코 동포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멕시코시티에 있었던 1905년 한인이민 후손들이 주도한 한인회에 회원으로 참가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시티의 한인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이민후손들에 의해 이끌어졌었다.

한국인들이 멕시코에 이민으로 들어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소자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식당을 열거나, 자영업 또는 가내공장을 하고 있었고, 또 유학을 왔다가 현지 한국상사에 취직해서 그대로 교민이 됐던 사람들, 또 현지의 바이어나 공급업자를 끼고 한국에서 천이나 원단, 옷 등을 가지고 왔거나, 또는 한국에 직접 들어가서 한국산 옷이나, 신발, 문방

구류를 가지고 와서 현지에서 팔던 소위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멕시코에는 다른 남미국가들, 즉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처럼 한인사회는 형성되지 않았고, 또 동포경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한국인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최소한의 힘을 발휘할 만큼 충분한 인원이 없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취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을 규제했던 멕시코 정부의 사회주의적 색채의 경제정책도 한국인들이 멕시코에 들어오는 데 장애가 되었던 점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한국인들이 멕시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즉 멕시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점도 들 수 있겠다.

아무튼, 1980년대는 지금의 한인사회의 틀을 마련한 하나의 맹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멕시코 이민을 본격적으로 논하게 되는 시기는 1990년대, 특히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일 것이다. 이 시기와 맞물려 한국에서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IMF 사태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의 이주를 고려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이민 수속이 까다로운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민이 수월했던 멕시코가 좋은 이민대상국으로 떠올랐다.

1980년대의 의류업, 소규모 자본의 자영업, 그리고 속칭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는 일에 한정되었던 한국인 이민들에 비해 최근에 멕시코로 들어온 사람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규모는 다양해졌다. 이제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자본으로 공장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는 통신 및 첨단 오락기구 등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멕시코로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1개 있던 한국식당이 현재는 멕시코시티에만 20개가 넘고 심지어 술집, 노래방, PC방도 생겼고 또 병원, 한의원도 개원하여 영업 중이다. 여러 개신교파에서 세운 교회만 해도 10개가 넘으며 최근에는

불교선원도 두 군데나 세워져⁶⁾ 그동안 멕시코의 한인이민들 중 불자들에게도 불교도 보급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인들이 일정 수 거주하는 지역이면 한글학교가 설립되어 ‘과달라하라 한글학교’, ‘유카탄 무지개 한글학교’, ‘메리다 CORMEX 한글학교’, ‘멕시코 한글학교’, ‘몬테레이 한글학교’ 등 총 4개 지역에 6개의 학교가 세워져 동포 2세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문화활동의 공간도 두 군데나 생겨 한국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⁷⁾ 또 청소년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팀도 생기는 등, 근 10년 사이에 멕시코 동포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와 더불어 멕시코와 한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과 국경을 맞닿은 도시인 엔세나다, 티후아나, 그리고 멕시코시티 근교의 푸에블라 같은 도시에 한국의 마킬라도라(Maquilaora)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고, 한국 유수의 건설업체가 멕시코로 진출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경제적인 것 이외에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그룹들이 멕시코 현지인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에 한류 열풍이 현지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멕시코에도 인터넷을 통한 한류열풍이 조심스럽게 불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작년 현지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영된 한국의 한 드라마는 멕시코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단한 반향

6) 한국 자혜불교회는 ‘선련사’라는 이름으로 멕시코시티에 한국 사찰을 설립했고 주지로는 도안 스님이 내정중이다. 또 하나 2002년에 개원한 반야선원(일감 주지스님)은 신도들을 위한 법회 말고도 멕시코 한인이민 전체를 위한 문화원 설립을 계획 중에 있다. 2002년 초부터 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한문교육은 많은 실효를 거두었고, 그것에 힘입어 동 선원측에서는 선원의 규모를 확장해 멕시코 한인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교육의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韓Diario 2003년 10월1일자).

7) 멕시코에는 현재 2003년에 문을 연 멕시코시티 소재 <재멕시코인원> 그리고 멕시코 제2도시인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 한인문화원>이 있다. 전자가 멕시코시티 거주 동포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문화원이라면 후자는 미국동포인 강학주씨가 멕시코에 정착해 자비를 들여 세운 문화원이다. 그동안 문화적인 여유가 없었던 한국인 동포들에게 이 두 문화원은 한국문화를 접하고 맛보는 것 외에, 한국교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멕시코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을 일으켰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안재욱을 좋아하는 ‘안재욱 팬클럽’이 결성되었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와 그의 음반 CD, 드라마 비디오테이프 등이 팬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그 매개체를 통해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안재욱 팬클럽 사이트’(Club de Fan Club Always AJW Mexico)가 개설되어 있는데, 200명의 정회원외에 매일 사이트를 관람하는 네티즌만 해도 천명이 넘는다고 한다(韓Diario 2003년 11월10일자).⁸⁾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특징짓자면 한국인 이민들의 수가 많아졌고, 또 이전에 진출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던 동포들,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인사회가 구성되었고, 또 한인경제도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멕시코시티의 테피토(Tepito) 시장이나 시내 중심부인 센트로(Centro) 상업지구에서 가게를 하나씩 사들여 한인촌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응집된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또 이런 확대된 동포경제의 위상에 부응하여 2003년 11월 ‘한인상공인협회’가 설립되었다. 실상, 멕시코 한인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상인들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불법영업을 하는 한국인 상인들의 활동을 자체 단속하고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조직은 앞으로 한국인들이 멕시코 법을 무시하지 않고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멕시코의 정부의 부당한 요구나 탄압을 시정하고, 한국인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⁹⁾

8) 엄정화 팬클럽 사이트 등 서너개의 멕시코 현지인들에 의해 개설된 한국 대중연예인 매니아들의 사이트가 더 있지만 안재욱의 생일날 회원들이 함께 모여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고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재욱의 이것이 단순한 한국 연예인 사이트가 아니라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배우는 보다 큰 의미의 한국을 홍보하는 사이트로 발전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의 문화관광부가 수십년 걸려서도 이룩하기 힘든 사업을 현지인들 스스로 만들어주고 확산시켜주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를 진지하게 접근하고 수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면 기대이상의 한국문화보급에 큰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9) 이 조직은 ‘한인상공인협회’라는 이름으로 2003년 11월, 14명의 발기인으로 멕시코 시티의 중심부인 미스칼코 또는 아르헨티나 지역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이 협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현태씨의 의하면 이 조직의 운영결과를 보아 가면서 멕시코시티 이외의 타지역의 한인 상인들 모임도 이 조직에 합류시킬

이렇게 초기의 한인사회와 비교해 현 한인사회는 여러 면에서 양적으로 확장을 했고, 또 많은 부분,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질적 향상이 과연 양적 확장에 비례할만한 정도인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 최근의 멕시코 한인사회는 여러 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상업활동 등으로 인한 멕시코 정부의 단속, 그로 인한 동포들간의 불신과 한국인 이미지의 추락, 그리고 멕시코 경제침체에 따른 한인경제의 어려움, 기존에 멕시코에 먼저 와 정착한 한인사회와 최근에 남미에서 몰려온 이민자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 한인회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한인사회의 경제가 쇠퇴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작금의 멕시코의 경제불황에 기인하지만 한인사회 내부의 여러 문제들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멕시코 한인사회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은 아마도 2001년 멕시코 정부가 한국인 의류업체나 상인들에게 밀수와 가짜 상표 도용, 영수증 미발행 등의 혐의로 한국인들을 체포하고 구속한 사건일 것이다.¹⁰⁾ 물론 이 사건은 한인사회 일부의 탈선이겠지만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공공연하게도 불법, 탈법 행위를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멕시코 경찰의 한국인에 대한 편파수사 및 차별대우가 있기는 했지만 멕시코 정부에서 경고하고 규제했던 변칙, 불법적인 영업활동이 지속되면서 이런 사태가 터졌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현지언론들에 의해 “마피아 집단” “총기거래까지 일삼는 한국인”¹¹⁾으로 매도되었고, 멕시코 연방 상원의원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자국 국회에 상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멕시코 한인사회의 이미지는 많이 실추되었다.¹²⁾

것이라고 한다.

10) 2001년 12월 멕시코 경찰은 밀수와 상표 위변조 혐의로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던 상가를 급습, 43명을 체포하여 그 중에서 32명을 구속, 수감했다 19명을 풀어주고 8명은 준기소, 5명을 정식 기소한 상태가 발생했다. 한편 연행 및 구속과정중에서 알몸수색 등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교민들, 그리고 그것을 보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KBS 추적60분)을 보고 많은 한국인들이 공분하였다.

11) 전멕시코한인회장이었던 신현태씨와의 인터뷰(2003년 8월 14일)에서.

이 시기의 멕시코 한인신문을 보면 동포들의 계모임이 깨지고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 사기 및 절도가 빈번하게 기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멕시코 동포들사이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불화와 분란이 존재하고 있다. 멕시코 한인사회의 순조로운 정착과 질서는 최근 3~4년 사이에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에서 갑작스레 들어온 동포들의 무분별한 정착과정에서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¹³⁾,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동포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 의류업과 같은 분야에서 동포들끼리 벌였던 무분별한 경쟁을 들 수 있다.

III. 민족정체성과 한인회

III.1. 멕시코 동포사회와 한인회

시간적으로 멕시코 한인이민의 역사는 40여년 되지만 한인사회는 여전히 1세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기성세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 1세대들은 자신들이 지녀온 한국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멕시코 현지문화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배웠고, 그 멕시코의 관습들 역시 자신들이 지닌 기존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 활동을 통해 주로 형성된 인간의 망이 한인 이민사회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멕시코의 현지사회와 갈등 및 불화를 빚고 있다.

다민족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 집단의 민족적 정체성은 여러 가지 차원을 통해서 형성된다. 현지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모국문화의 의도적인 지속과 강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얻게되는 것일 수도 있다.

12) 멕시코 지방신문인 라크로니카(La Crónica)지(2003년 11월16일자)는 “한국인 마피아 2천명이 세력을 확장, 상권을 장악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고, 멕시코 연방 카하와시 상원의원은 “한국인들은 마약거래자로 추정된다”로 묘사하고 있다.

13) 신현태씨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기제는 이민 생활의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한인이민들은 이민생활의 실제적 상황에서 타인들의 눈에 자신이 한인임이 구별되는 경우나 한인임을 내세워 불이익이 더하고 실용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는 민족적 정체성을 내세운다. 또는 외부의 직접적인 자극이 없어도 자신이 유지해 온 생활양식과 문화적 관념을 인간관계속에서 표현하거나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측면은 경제생활 및 한인회 활동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후자의 측면은 가족생활 및 자녀들의 교육에서 강조된다(전경수 1996, 191).

한인들끼리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묶어주는 실제적인 고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모여 산다고 해서 또는 한인들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이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인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물론 한국인들이 지닌 감정이나 경험이 반드시 민족적 유대감이나 동질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관계의 토대 위에서 인간관계의 속성, 생활습관, 언어, 문화적 관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전경수 1996, 193).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다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물인 사회조직체가 있다. 바로 멕시코에 갔던 한인들이 도시 곳곳마다 결성한 한인회가 그것인데, 그들은 한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일종의 정치적 사회단체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 멕시코 이민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동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다.

1905년 멕시코 초기 한인이민부터 존재해왔던 한인회의 활동은 당시의 한국의 상황과 맞물려 민족 정체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09년 유카탄 에네켄 농장노동의 계약이 풀린 후, 한인들은 메리다에 한인회(원래 명칭은 대한국민회 메리다 지부)를 세웠고, 유카탄의 한인들 중 쿠바로 건너간 한인들은 아바나의 한인회, 그리고 1940년대 멕시코시티나 티후아나로 흘러 들어간 한인 이민 후손들은 각각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인회를 설립 하였다. 초기

의 멕시코 한인회는 이민사회 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 장차 하나의 민족집단을 대표하는 조직체로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오랜 기간의 단절 끝에, 1960년대 이후에 멕시코로 들어온 새로운 한인이민사회는 1996년 후기에 온 사람들만을 주축으로 새로운 한인회를 멕시코시티에 설립, 현재 활동 중이다.¹⁴⁾

한인회 조직과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국의 상황은 이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모국과의 실제적 교류가 증가할수록 한인회는 활성화되고 동포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

한국인 이민들이 터전을 잡은 거의 모든 지역에는 한인회 조직이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 및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과 교류를 가지면서 멕시코 한인 전체사회를 포용하는 가장 힘있는 사회단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동포들이 한인회나 대사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자명한 일이다.

III.2. 한인회 현황과 문제점

멕시코시티의 한인회는 1996년, 순전히 1980년대에 들어온 한국인들에 의해 조직되어 지금 7대에 이르고 있다. 한인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상주), 감사(2인) 및 이사(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13,000여명(추정)의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한인회가 하는 주요 일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화합이다. 한인회는 매년 5월1일(멕시코 노동절 휴일)을 한인 체육대회의 날로 지정하여 동포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정례화된 이 대회에 올해에는 200여명의 2,3세 청년

14) 한인들에게 중남미 최초의 이민지였던 멕시코에는 1967년 이후 도착한 한국 국적의 이민자들이 소수인 반면, 계약노동자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후손이 4,000세대나 살고 있다. 멕시코의 한인회 조직은 멕시코 국적 한인 후손들의 참여와 도움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1965년 결성된 멕시코 한인회, 1970년 결성된 티후아나 한인회, 1987년 결성된 과달라하라 교민회가 있다. 앞의 두 단체는 회원수가 각각 550명과 45명이며, 초기에는 한인후손 출신이 회장단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의 이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이민 출신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과달라하라 교민회는 80명 정도의 규모이다. 2003 재외동포현황 참고.

들과 120여명의 한류클럽 회원들(한국을 좋아하는 멕시코 현지인)이 초청되어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었다.¹⁵⁾

무엇보다도 한인회의 최대 현안은 내년도 멕시코한인이민 백주년 기념 행사이다. ‘멕시코한인회’와 ‘멕시코한인이민 백주년기념사업회’는 2005년을 맞아 멕시코한인이민 100년의 역사편찬, 메리다 한인회관 복원, 이민 백주년 기념비 제작, 한국학교 건립, 이민 백년제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에 불어닥친 멕시코의 경제 불황으로 멕시코 동포 경제가 나빠지면서 동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해 기념사업이 삐걱거린다는 소리도 들린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 행사에 대한 동포사회의 무관심이다. 특히 역사편찬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전문가가 아닌 몇몇 사람이 주도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사람들의 인적구성 및 전문성에 대해 멕시코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이 점점 그 명분을 상실하고 동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韓Diario 2004년 1월13일자).

이런 상황하에서 멕시코의 동포들은 한인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동포신문 한디아리오(韓Diario)가 2003년 창간기념으로 벌인 동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재멕시코 한국대사관과 제5대 한인회에 대한 한인동포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결과로 나타났다.¹⁶⁾

15) 천세택 멕시코시티 한인회장과의 인터뷰(2004년 8월 16일)에서. 이 외에, 한인회는 매년 11월 29일, 시내 중심가의 살롱을 빌려, 한인 2세들의 교류와 한인 정체성 고양을 위한 모임 등 청소년문화축제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60여명의 한인 2세(중·고대학생)가 참여하였고 전자오락, 연극, 노래자랑, 웅변대회, 장기자랑, 등의 청소년 세대에 맞는 놀이 문화를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친목을 도모한다. 참고로 3.1절이나 8.15 광복절은 대사관 주최로 열린다.

16) 한·멕시코 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한인 사회에서 처음 실시한 대동포대상의 설문조사에 한인동포들의 멕시코 이민생활을 조명해 보는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대사관과 한인회를 비롯한 원로한인들을 바라보는 동포들의 시각과 관점을 토대로 15개 항목의 질의서에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총 600부를 한인 종교단체, 식당, 미용실 같은 한인들이 자주 모이는 업소, 국내상사들의 멕시코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한인단체 모임장소 등 한인들이 주로 운집하는 곳에 배포하여 총 288부를 회수해 나온 결과이다. 또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인 멕시코회원(<http://cafe.daum.net/mex>)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30대(34.5%)와 40대(29.3%)가 가장 많았고 멕시코 거주 2-3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4-5년(24.4%), 5년 이상(23.3%), 2년 이하(18.6%)순으로 집계

2003년 8월에 제6대 한인회에 대한 설문에서 “금번에 출범하는 제6대 한인회가 한인사회에 얼마나 공헌하시라고 판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19.6%, “그다지 잘 할 것 같지 않다”는 33.9%, “적당히 공헌할 것 같다”는 46.5%로 한인회에 대한 동포들의 생각이 그리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았다.

사실 이제까지 한인회는 동포사회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것은 멕시코 이민사회의 연혁이 짧다는데 이유가 있고, 또 멕시코 이민사회가 현지에 뿌리박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설문조사는 그것을 잘 증명해준다. “제6대 한인회는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포들간의 화합과 결속”에 44.3%, “멕시코 정부의 대한인 횡포로부터의 보호”에는 26.8%, “이민 생활 기반의 안전구축”이라는 항목에는 11.8%라는 답이 나왔는데, 사실 이 세가지 답은 모두 멕시코 한인들의 똑같은 기대감을 보여주며, 이 설문조사가 실시됐을 때의 동포사회의 현 실태, 그리고 동포들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감정을 반영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멕시코 동포사회에서는 유례없는 불신과 갈등이 일고 있다. 아마도 2001년도 겨울, 멕시코 정부로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구속된 사건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 한인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은 무엇인냐라는 질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동포들간의 불신, 멕시코 정부의 횡포를 들고 있다. 한편, “향후 한인사회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설문에는 “더 악화될 것 같다”(51%),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40.3%), “크게 기대한다”(8.7%)로 멕시코 거주 많은 한인들은 현재의 한인사회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되었다. 설문조사의 출신지역을 보면 멕시코 이전에 한국에 거주했던 동포가 53.1%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 이외의 남미에서 온 동포가 38.7%였다. 직종은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를 비롯해서 회사원, 유학생,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동포신문이 창간 기념으로 기획한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인원, 설문내용 등 많은 한계가 있기는 하나 동 양케이트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설문조사이고,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멕시코 동포사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조사내용을 통해 당시의 멕시코 한인사회나 동포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현 멕시코 한인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여기서 재인용한다. 韓Diario 창간호 2003년 8월13일자 참고.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계속 남겠다”는 동포가 “멕시코를 떠나겠다”는 동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남겠다고 응답한 사람들(35%)이 멕시코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25%)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멕시코의 이민생활을 결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통계가 나왔다. “향후 한인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더 악화될 것 같다(51%)”고 답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여건이나 기회가 온다고 해도 “계속 멕시코에 남아 있겠다”는 동포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온 점을 비추어 볼 때 멕시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낮은 소속감이나 지나치리만큼 강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멕시코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멕시코 이민생활에 잘 정착해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보려는 한인동포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비해서는 훨씬 여건이 좋고, 장사할 틈새가 많은 그런 나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현지 대사관에 대한 동포들의 시각 또한 한인회에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하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정부의 교민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사관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이점이 드러난다. “그동안 대사관이 대동포업무에 얼마나 열의를 보였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크게 열성을 보였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0.2%,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답을 한 사람은 60.8%로서 대부분은 멕시코 동포들은 대사관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다(“보통 수준이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39%임). 한편,

17) “멕시코 한인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다수는 동포들간의 불신, 멕시코 정부의 횡포를 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업조건의 악화나 경기침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 사람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한가지 “그래도 멕시코를 떠나신다면 어느 나라로 가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한국(32.4%)으로의 이민 또는 인근 국가인 미국, 캐나다(30.7%)로의 이주를 원하고 있다.

“대사관이 재외 공관원으로서 어떤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대동포업무를 들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나 사회단체가 재멕시코 한인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적극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보통이하”가 55.3%, “무관심하다”라는 대답이 44.5%인 것을 보면, 거의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국정부의 대동포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향후 한국정부나 대사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IV. 향후 전망과 과제

IV.1. 당면과제

그동안 멕시코의 한인사회는 짧은 기간,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제 멕시코의 한국인들은 사회계층적으로 중간, 또는 중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그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보아왔다.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서 자본을 가지고 의류업 등을 통해 성공을 했지만 멕시코가 지닌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한국동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수입규제, 또는 법령의 완비 등을 통해 이제까지 속칭 보따리 장사나 상표도용, 밀수 등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규제 및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한국 동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동포들은 멕시코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또 멕시코 사회에 잘 동화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을 현지인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아직도 한국인들은 현지인들과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하지 않고 한국인들끼리만 유대감을 강화시켜, 현지사회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활동은 부재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한국

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문제이다. 늘 한국인들은 한국문화와 현지문화와의 차이 속에서 심각한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실례로, 현재 멕시코 동포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 중의 하나로 현지인을 고용하면서 멕시코 법규에 대한 정보의 부재에서 빚어지는 불이익을 들 수 있다. 많은 동포업소가 인력난과 경영수지 문제 등으로 멕시코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관습의 차이로 인해, 그리고 스페인어의 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근무시간과 임금에서 마찰을 빚고는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멕시코 노동관련 단체 등에 의해서 고발되어 현지인들에 의해 알려져 법정 갈등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기도 한다(韓Diario 2003년 8월20일자).

물론 어떤 한국인 경영주들은 과당경쟁, 장기불황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오버타임 임금규정 등을 바르게 지키면 회사나 업소를 문 닫아야 할 판인데 어떻게 법규를 다 지켜가며 영업할 수 있겠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 체제에서 경쟁행위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법 또한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과 멕시코 노동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근래의 동포업소들은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법규 위반이나 종업원 부당대우 사례는 현저히 줄어든 편이다.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체불이나 저임금을 실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간혹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인격적인 차별을 불만으로 내세우는 현지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멕시코 이민역사가 짧은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멕시코 한인이민들(여기서는 1905년에 멕시코에 온 초기 한인이민의 후손들은 배제한 경우)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을 멕시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은 한국과 멕시코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살면서도, 만약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인식한다. 이처럼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동포들은 해당사회에 동화되

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인들이 멕시코 또는 멕시코인들에게 가지는 이상한 우월 의식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멕시코 한인들만 명 정도로 고려해 볼 경우, 실제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200명도 채 안된다고 한다.¹⁸⁾ 이것은 한국인들이 이민지인 멕시코에서 세대에 걸쳐 정주할 의사가 없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나라, 특히 인근의 미국이나 캐나다로 언제든지 이주하기를 원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¹⁹⁾

또 한가지 심각한 것은 부모와 자식간의 의사소통 단절이다. 부모 세대들이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터전에 뛰어들어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반경에서 살면서 오로지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다. 반면, 그들의 자녀들은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현지언어를 습득하고 현지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현지 사회에 동화되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간의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세대간에 괴리감이 일어난다. 여기서 한국동포들이 당면한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이다. 1세 이민자들은 그들의 유일한 공간인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데 비해서, 2세 자녀들은 한국말이나 문화보다는 현지언어와 문화를 더 빨리 익힌다. 이런 두 입장에서 가족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각자 서로를 접촉하면 할수록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더없는 위협감을 느끼며 갈등하게 된다.

IV.2. 이주 및 정착 전망

한국정부가 멕시코와 외교관계를 맺은 뒤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멕시코로 이민한 시기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80년대 이후로, 이때부터 자영업 이민이나 제3국을 경유한 불법이민, 그리고 도

18) 서동수씨와의 인터뷰에서.

19) 지금도 멕시코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옥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다.

피성 이민, 초청이민 등은 많이 줄고 투자 및 자영업 이민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초기의 이민이 농업 노동력의 공급, 사회불안으로부터의 도피, 빈곤계층으로의 유입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이민은 현지사회의 자본확대, 기업투자 및 자영 활동의 적극적 이민, 현지사회의 중간 계층으로의 유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민현황 통계에서 보았듯이 최근 멕시코로 한국인들의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투자이민이거나 한국에서 자본을 가지고 와서 멕시코에서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이민이다. 이런 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전개될 한국이민이 자본 투자의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멕시코는 무엇보다도 투자이민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적 상황에서도 외국투자에 대한 활동력이 기업과 개인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사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며, 날로 증대되는 외교적, 문화적 교류는 이러한 정보의 확대를 뒷받침한다. 이런 추세에서 풍부한 현지정보와 가능한 투자한도가 엄밀히 계산된다면 투자이민과 관련한 여러 대안이 새롭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넉넉한 자본력을 갖추고 현지 농업실정에 밝은 이민 희망자가 생겨난다면 이제까지 멕시코에서는 해보지 못한 기업농으로서의 성공 가능성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카탄 반도에 알로에 농장을 세워 성공한 ‘남양 알로에’는 그 좋은 예이다.

앞으로,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전망은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인 차원에 대한 지식 역시 이민생활과 정착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IV.3. 현지사회와의 갈등 및 조화

멕시코 사회에서 인종적 또는 민족적 차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빈부의 격차나 계층간의 반목이다. 경제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한인 이민들의 행위는 멕시코인들에게 극도의 이기심으로 비치기도 했는데, 이 점 때문에 한인 이민들은 현지 사회로부터 종종 눈총과 질시를 받았고, 자주 문화적 갈등을 빚었다.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 민족이라든지, 또는 한국 부인들이 공원 등에 가서 멕시코인들이 안먹는 나물을 캐는 이런 행동들이 멕시코 현지언론에 보도되어(과장되고 악의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멕시코 한인사회나 더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현지 한인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 이민자들의 개척상황에 비하여 후속 이민들은 훨씬 쉽게 현지 적응을 하였다. 향후에 한인사회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인사회의 자율성과 통합성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 전체사회에 대한 적응을 오히려 가로 막을 수도 있다. 멕시코의 경우, 초기의 이민후손들과 새롭게 온 이민들 특히, 전문직 기술과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 이민이 계속 도착할 경우 서로 다른 성격의 이민들이 어떻게 융합할지는 미지수이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만을 갖고 한인사회의 의류업계에 뛰어든 많은 선배 이민들과는 달리 자기 자본과 기술을 가진 후속이민들은 곧바로 한인사회에 통합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중남미 이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한인 이민이 당면한 가장 핵심적 과제는 현지사회에 대한 적응이다. 적응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중남미 한인 이민들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현지사회 적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멕시코 한국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의류계통이다. 그러나 의류업 중심의 동포경제는 그 자체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업종의 지나친 경쟁과 집중으로 멕시코 사회에서 문제가 터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단일업종에 이민들의 절대 다수가 집중되었을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급속한 불황으로 이어진다. 아르헨티나 동포들의 의류경제가 파산한 것은 좋은 실례이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동포경제를 유지하고 현지에의 경제적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사회의 전문직종으로의 진출과 다변화된 업종으로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 한 가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한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멕시코의 한국인들이 민족적 갈등을 겪거나 인종차별을 당한 예는 드물다. 하지만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상호간의 이해부족, 경제생활의 태도 차이로 인해 생긴 계층간의 격차는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²⁰⁾ 때로 멕시코의 한국인들은 멕시코인들보다 조금 나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또는 이기적인 성취욕구와 생활태도 때문에 자칫 현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이나 적대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눈에 부유층 집단으로 비추어지면서 어떤 점에서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로도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점은 앞으로 한국인들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 1세인 이유에서인지, 한국인들은 여전히 멕시코인들이나 멕시코 사회에 잘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소하는 지름길은 현지사회의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관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와 노력에 있다. 보통 한국인들은 멕시코인들이 가진 편견

20)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글학교는 현지 멕시코 학교의 교실을 임대하여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고학년 학생 2명이 낯곳은 저학년 어린 학생들을 고압적인 자세로 나무란 행동이 현지학교의 관리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멕시코 현지 학교 측은 한글학교를 쫓아내려고, 결국 한글학교측에서는 이 두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적인 상하관계, 특히 한국의 선후배 학생 사이에서의 위계질서와 정황 등을 이해 못한 양국간의 사고방식 차이 중의 하나이다(2003년 8월 26일 한글학교 오정란 교장하고의 인터뷰에서).

이상으로 그들에게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²¹⁾ 멕시코와 같은 다민족사회의 생활 양식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타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문화상대주의의 미덕을 체득하지 못하면 그들은 언제나 별종 인간으로 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전경수 1996, 211).

현지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인회 활동 등을 통해 현지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길이 있다. 동포들 사이에서도 멕시코 현지 사회를 위해 한인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멕시코에 재해 상황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에 앞서 멕시코 한인 사회가 먼저 술선수범하여 지원금이나 구호품을 보낸다든지, 지역사회의 봉사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근 한인회(한·멕시코 청소운동본부)가 멕시코시티의 한구청과 협력하여 매주 일요일, 한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청소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멕시코인 들에게 한국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말고도 동포사회에서는 현지사회와의 조화를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실천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멕시코 현지사회와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 멕시코시티 중심가인 소나로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인 식당이나 교회, 미용실, 가게 등의 순 한글로 되어 있는 간판에 스페인어도 함께 병기하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사실 한국어로만 된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현지의 한국인들에게 또는 그곳을 방문한 한국인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현지인들에게는 도전적으로 보이고 어떤 면에서 반감을 사고 있다.

한편, 월드컵 경기때 이미 시도해서 멕시코 현지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경험에 비추어 내년도 멕시코한인이민 백주년기념을 맞아 매년 ‘한국의 날’ 제정해 한국음식 축제같은 것을 벌여 대외홍보

21) 멕시코인들에 대한 호칭은 차치하고서라도 80년대 이후 멕시코에 들어온 한국인들은 초기 한인이민 후손들을 일컬어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데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 수 있다.

강화 및 한국인 문화소개 활동의 필요성이 동포들 사이에서 재인식되고 있다.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 빈민들을 도우는 다양한 자선사업을 전개하여 한국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인 친함과 멕시코인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²²⁾

그러나 한인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 주류사회에 직접 진출하여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모국의 정부나 대사관의 지원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현지 사회에 대한 친화력 및 적응력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이 늘어나 한인사회를 멕시코 전체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것만이 한인 이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신장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들의 이주 목적은 이민 시기와 이민 방법, 그리고 이민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보나온 기회를 찾아서, 즉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다. 멕시코 이민자의 급증은 한국의 IMF 사태,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제여건 악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멕시코 한국동포들의 직업은 대부분 무역업, 서비스업, 생산업 등이 주종을 이룬다. 즉 동포 상당수가 생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수는 매우 적다. 이렇게 의류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22) 현재 멕시코시티의 중심부, 상업지구인 소나로사에 있는 한인문화원(원장 김선희)에서는 매주 토요일 약 10여명의 멕시코인들이 모여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그 모임의 명칭도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한다. 한인문화원측은 앞으로 멕시코인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또한 멕시코인 강사를 초빙하여 살사 댄스강습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전호흡, 참선, 명상을 현재에도 많은 멕시코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음악, 운동, 레크레이션 등을 통하여 멕시코인들과 친근해지고 그들을 친한국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韓Diario 2003년 8월 15일자).

서비스업 종사에 몰리게 되는 이유는 적은 자본, 언어상의 한계 등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분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인들이 멕시코 현지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나와 주류사회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멕시코의 한국인들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식으로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획득하고 멕시코 법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현지사회로부터 위화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멕시코의 동포들은 화합하고 힘을 합치고, 한인회나 대사관은 이들을 뒤에서 지원해야 한다. 멕시코에서 쉽게 큰 돈을 벌어 빨리 멕시코를 떠났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멕시코에 뿌리를 박고 오래 살 사람들이다. 소수의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행동이 전체 한인사회를 옥먹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동은 서로 삼가고 지양해야 한다.

그동안 멕시코 한인사회를 휩쓸었던 문제들도 가라앉고, 이제 과도기적 현상도 어느 정도 지났다. 멕시코의 한인사회의 구성원 각자, 저마다의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민자, 가족 그리고 전체 한인사회가 멕시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인회나 대사관, 한국정부는 이들이 현지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멕시코 주류사회에 빨리 편입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바람직한 이민 정주방향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제 멕시코의 한인사회는 예전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고, 그 힘이 약하지도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멕시코의 한국인들의 수가 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한인사회가 화합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인 이민사회의 미래다. 여기에서 차세대의 중요성이 새롭게 등장한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라나는 2세교육의 중요성을 말

한다. 그들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어하는 분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국정부는 이들의 간절한 희망에 부응하여 한글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서 단절된 한인사회가 세대를 이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시에 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또 그들이 이런 활동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문화용품이나 교재들을 보급하여 한국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게끔 하는 일도 필요하고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내년도 멕시코한인이민 백주년기념이다. 그 행사는 이민 백주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백년을 또다시 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행히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제1세대 한인이민 후손들과 최근의 이민세대들과의 교류가 다시 재개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민백주년 기념이 한인사회에 좋은 계기가 되어 그동안 뿔뿔이 흩어진 멕시코 각 지역의 한인회가 서로 네트워킹하여 한인회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여 한인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인다면 전체 한인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바람직한 멕시코 한인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 그리고 한인회, 대사관의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Abstract

Under New Liberalism, the opening-door, and globalization, recently personnel resources are shifting on the global scale. As the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crises in Latin America these days, many Latin Americans emigrate into another countries and return home. However, the problem caused by global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on is not limited

to Latin Americans. In search of a new life supported by the opening-door policy, Koreans emigrated into Latin America. On the reverse, Korean emigrants into Latin America came back 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henomenon of personnel resources movement in the region is conspicuous. The Korean living in Brazil, Paraguay, Argentina leave the country where they started a new life. Especially, Argentina's economic default influences Korean immigrants in Argentina to emigrate into Mexico.

Up to now, the Korean community, though small in number, has increased bigger extensively because of new immigrants from Korea and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However, as many Koreans immigrated into Mexico and the Korean community has grown larger suddenly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have been much confrontation with Mexicans, and conflicts and disharmony among the Korean community. It is not desirable that these phenomena hurt each Korean immigrant,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image of Korea.

This paper puts its focus on the point discussed so fa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case of Mexico since the 1990s, explores the desirable immigration and settlement, Koreans' entry into the main stream of the Mexican society and the directions of their further development.

Key Words: Inmigración, México,, Coreanos en el extranjero, Comunidad coreana, Identidad / 이민, 멕시코, 동포, 한인사회, 정체성

논문투고일자: 2004. 10. 26

심사완료일자: 2004. 11. 09

게재확정일자: 2004. 11. 20

참고문헌

- 서성철(2004), 「멕시코 초기 한인이민의 역사 : 현지조사를 통하여」, in 『러시아고려인 역사 140년: 성찰과 새로운 모색-재외동포재단 백과사전 편찬·멕시코 한인사회』 (재외동포재단·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pp. 221-249.
- _____ (1995), 「멕시코 한인이민사 현황과 문제점: 초기한인이민에 국한하여」, 재외한인연구 No.5, 재외한인학회, pp. 198-218.
- 이자경(1998),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 이종철(2000),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과제」, in 『21세기 해외 한민족공동체 발전 전략』(전남대학교 개교 48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전남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pp. 4-12.
- 전경수(1991), 『브라질의 한국이민』, 서울대출판부.
- _____ (1996), 『세계속의 한민족 6권-중남미편』, 통일원.
- 정경원/신정환(2003), 「쿠바한인후손의 정체성 상실과정 연구」, 서어서문연구 No.28, pp. 717-731.
- 외교통상부(2001), 『재외동포현황』.
- _____ (2003), 『재외동포현황』.
- 인류사회연구소(2002), 『MERCOSUR(남미공동시장) 역내 교민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보고』,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03),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 韓Diario(멕시코동포신문, <http://www.cafe.daum.net/handiario>)

서동수, 2004/08/13, 인터뷰

신현태, 2004/08/14, 인터뷰

오정란, 2004/08/26, 인터뷰

천세택, 2004/08/16, 인터뷰

Barkan, Elliot Robert(1992), *Asian and Pacific Islander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 Model of New Global Pattern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Chen, Jack(1980), *The Chienese in America*,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Ming, Bill Ong.(1993), *Making and Remaking Asian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1850-1990*,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NaVarro, Moises González(1979), *Raza y Tierno - la guerra y el henequen*, 2nd ed.,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Romero Castilla, Alfredo, "Los coreanos en México", *Las Permanencias*, pp. 96-105.

Ruiz Raúl R y Lim Kim, Martha(2000), *Coreanos en Cuba*, Habana: Colección La Fuente Viva.